

# 인구절벽에 병력 감축 교원 수급 기준도 마련

인구절벽에 따라 학령인구·병역의무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군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아울러 교원채용 규모 조정 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국방분야에서는 올해 말 기준 상비 병력 57만9,000명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군병 인력을 줄이고, 전력구조를 드론봇·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경·해경 등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다만,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27→29세)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변화 및 교

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내년까지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대·일반대·전문대·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2022년부터는 일반대 정원, 2023년부터는 전문대 정원을 조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유형(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분담 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분야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건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하는 등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응키로 했다.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회사무국이나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을 공동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경기 부진에 '나홀로 자영업자' 증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직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한데다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새로 창업할 때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나홀로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6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천명(0.3%) 줄었다.

이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53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6천 명(7%)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412만7천 명으로 9만7천명(2.4%) 늘었다.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전체 자영업자 규모는 2000년대 초반 600만 명대를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가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최근 10년

간은 영세성이 짙은 나홀로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이전과 달리 나홀로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내수가 안 좋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창업할 때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창업으로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직원을 해고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

'나홀로 창업'에서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창업자의 비중이 8.8%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5만8천명(1%) 늘어났다. 이 가운데 취업 능력은 있지만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9천명이나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쉬었음'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6.9%로 가장 많았고, '퇴사(정년퇴직 포함) 뒤 계속 쉬고 있음'이 16.3%였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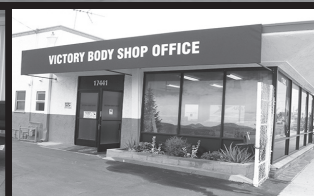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